



1월4일 상월선원 철야정진법회 법문 전 천막결사 현장을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수행처를 돌아봤다. 총무원장 스님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9명 스님들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하는데 해제하는 날까지 건강하길 발원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바람개비 돌리는 방법



동은스님의
지금 행복하기

가까운 곳에서 티베트 수행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곳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라마스님께서 지난번 오실 때 바람개비를 하나 선물로 주셨다. 어려서 출가한 스님은 가끔 장난 칠 때 보면 영광 없는 개구쟁이이다. 아마 재래시장에 갔다가 바람개비 파는 것을 보고 동자승 시절이 생각나 사신 것 같았다. 그때는 이런 걸 왜 사오셨나 하며 몇 번 장난하다 마루에 걸어 두었는데, 당신의 수행여정이 바람개비를 돌리듯 살아오신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오후에 바람이 좋길래 문득 바람개비가 생각나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마당 끝에 서서 바람 불어오는 곳으로 바람개비를 향하니 신나게 돌아갔다. 한참을 유년 시절 생각하며 재밌게 노는데 바람이 멈췄다. 바람개비도 같이 멈췄다.

바람이 잘 불 때는 가만히 서 있어도 바람개비는 잘 돌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다. 이때는 내가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카네기는 “바람

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척에서 월정사를 가다보면 대관령 산마루에 수많은 바람개비들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아이들의 장난감인 바람개비든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든 바람을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같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 두려워 등을 돌린다면 바람개비는 돌릴 수가 없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뒤에서 등을 떠밀어주는 순풍만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살다보면 무슨 일이 없겠는가? 마주 오는 바람을 맞으며 인생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눈은 깊고 고요하다. 웬만함은 힘든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내공이 쌓였기 때문이다. 새해다. 그대라는 향기가 희미해져 가는가? 마주 오는 바람을 두려워 말라. 바람이 거셀수록 나의 바람개비는 더욱 힘차게 돌아간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바로 더욱 진한 향기를 머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불어오지 않는 바람을 허염없이 기다리지 말라. 다만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바람개비가 되어 앞으로 달려보라. 그리하면 그대 영혼의 트랙에는 맑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것이다.

삼척 천은사 주지

총무원장 스님, 상월선원 법문 전국 선원 2000여 납자 격려

“불교중흥 시킨단 자부심 갖길” 백만원력 결집불사 동참 권유

동안거 반결제가 지나고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위례 상월선원은 여전히 북적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1월4일 경자년 첫 상월선원 철야정진 법회에서 법문하면서, 그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 등 부·실장, 국장 스님과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천막법당 안은 입주의 여지도 없었다.

환호와 박수 속에 법당에 들어선 총무원장 스님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상월선원 대중들이 해제 때까지 건강하게 정진하길 바란다”는 덕담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전례된 이래 지금까지 스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있지만, 뒷바라지를 해준 재가불자들의 큰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 역시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이 마련한 초석 위에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사부대중과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100원씩 보시할 100만명을 모집하겠다고 서원한 것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그 결과 계통대 삼

군사령부 영외법당 불사가 곧 첫 삽을 뜨고,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불교요양원, 신도시 포교당 건립 등 중요한 과제들을 열거한 스님은 “우리 불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불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엄동설한 상월선원에서 불기 없이 양치질만 겨우 하며 지내

는 스님들이 있으니, 해제 날에는 아홉 개의 큰 해가 뜰 것”이라며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정진하는 2000여 명 납자들도 도업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불자 대중도 용맹 정진하는 스님들 뜻을 잘 받들어 참선 염불 간경 주력 가람수호 사회복지 포교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자년 첫 주말 제22교구본사

대흥사와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 무안 원갑사 등에서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찾아와 대다라니기도를 봉행했다. 또 서울 조계사, 봉은사, 개화산 약사사, 일심선원과 성남 봉곡사, 진주 연화사, 동국대,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등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찾아와 천막법당서 기도했다.

하남=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재무 헌봉, 문화 법성, 조사 항림 보리가람대 법인처장 성현스님

국장급 중무원 일부 인사 단행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월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 재무국장재 헌봉스님, 문화국장재 법성스님, 조사국장재 항림스님을 임명하는 등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국장급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학교 보리가람농업기술대

학 법인처장에는 성현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마음을 내 충도들과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무국장 헌봉스님은 상륜스님은 은사로 1996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동학사 승가대,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승가사 제일선원, 법륜사 법륜제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문화국장 법성스님은 성월스님을 은사로 2000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신흥사 향성선원, 덕충총림

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여주 신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사국장 항림스님은 해봉스님을 은사로 2003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호법부 조사과장, 사서국장, 문화국장을 역임했다. 안양 염불사 주지다.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 성현스님은 법조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백흥암선원, 화운사 능인선원, 승연사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1월7일 출가상당사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출가상당사 해원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출가상당사 인담스님(왼쪽부터).

인담스님·해원스님 ‘출가상당사’ 위촉

조계종 교육원이 일반인들을 출가의 길로 인도할 출가상당사를 위촉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1월7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출가상당사 인담스님과 해원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스님들은 앞으로 2년간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가상당사 인담스님은 2004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009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청암사 승가대학과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 김제 망해사 주지 및 출가상당사로 활동 중이다.

출가상당사로 새로 위촉된 해원스님은 2010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01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재)아름다운동행 청소년 멘토, 흥법사 작심단기출가 지도법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종단의 출가상당사는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행자등록에 필요한 정보 전달과 출가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스님이다. 온라인 조계종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와 출가상담전화(1666-7987)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2019년 12월27일 총무원회의)



기정스님
대구 금안사



대영스님
서울 보성사



혜진스님
철곡 백운사



영인스님
울산 해인사 연꽃법당



여안스님
통영 미래사



범공스님
완도 신흥사



혜정스님
영광 연흥사



해원스님
나주 죽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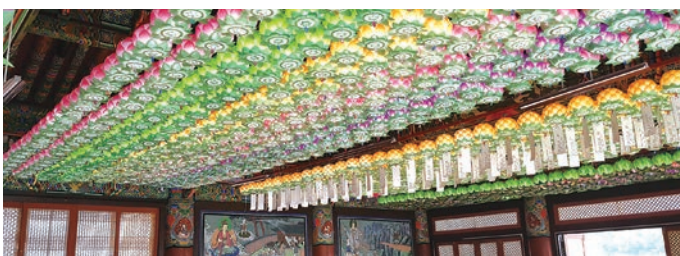
보련기획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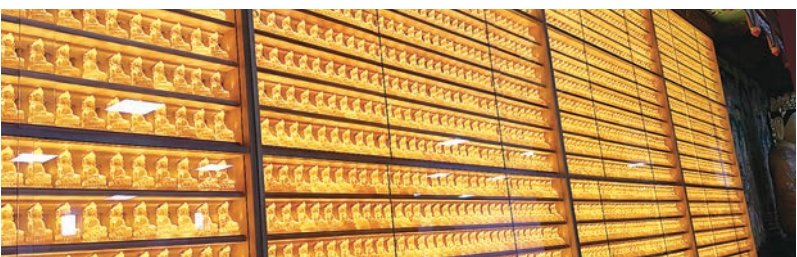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